10.15686/fkl.2024..61.106

젊고 아픈/미친 여자들과 자기 이론으로서의 글쓰기

-여성 거식증에 관한 일인칭 서사를 중심으로

김은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

목차

1 자기서사는 어떻게 문화적 우세종이 되었나?
2 엄마의 고통에 대한 딸의 응답과 몸의 항거
: 박채영의『이것도 제 삶입니다』
3 실격을 통한 자아 창조와 거식증에 대한 편집증적 지식애
: 박지니의『삼키기 연습』
4 자기서사의 문학적 시민권 문제
: 문학의 위기와 일인칭 리얼리즘의 서사성

국문 초록

최근 들어 당사자가 특정 시점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자기서사가 문화적 우세종이 되고 있다. 특히 젊고 아픈/미친 여자들이 저자로 출현 중이라고 할 만큼 질병과 광기에 관한 자기서사는 급증하고 있는 중이다. 자기서사 현상은 여성/소수자가 더 이상 가부장제의 눈치를 보거나 정상성 규범에 주눅들지 않겠다는 의지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이 자기 노출을 감행하는 것은, 페미니즘 지식이 대중화·보편화되고 페미니스트 '사회자본'이 형성됨으로써 '완벽한 여성'이라는 환상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자기서사 현상은 자기 자신의 삶을 무대화함으로써 비규범적인 여성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실험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아프고/미친 젊은 여자들의 자기서사 중 거식증에 관한 이야기를 분석한다. 『이것도 제 삶입니다: 섭식장애와 함께한 15년』과 박지니의 『삼키기 연습』은 질병/광기는 단순히 정상성을 이탈한 증거가 아니라 젠더 규범성과 여성의 갈등을 함축한 것으로 자기서사의 여성주의적 급진성을 증명하고 있다.

국문핵심어: 자기서사, 거식증, 페미니즘 리부트, 자기 이론, 여성의 광기, 글쓰기 등

1 자기서사는 어떻게 문화적 우세종이 되었나?

최근 들어 당사자가 특정 시점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자기서사[1]가 독서 출판 시장에서 미적 우세종이 되었다. 투병기, 전기, 자서전, 수기, 편지, 옥중기, 여행기 등 자기서사는 다양한 형식으로 이미 존재해 왔지만, 최근 자기서사 열풍은 분명히 새로운 문화적, 미적 현

1 비비언 고닉은 자기서사를 "삶이란 원료로부터 이야기를 끌어내 경험을 구체화하고, 사건을 변형하고, 지혜를 전달하는 자아라는 개념에 의해 통제되는 일관된 서사적 산문"(비비언 고닉, 이영아 역, 『상황과 이야기』, 마농지, 2023, 107쪽)으로 정의한다.

상이다. 과거에 자기서사 창작을 주도하던 작가층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중장년, 노년의 남성들이었다면 오늘날 회고의 주된 주체는 계급·신체·섹슈얼리티 등의 측면에서 소수성을 가진 젊은 여성들이다. 특히 젊고 아픈/미친 여자들이 저자로 출현 중이라고 할 만큼 질병과 광기에 관한 자기서사는 급증하고 있다. 이렇듯 새로운 작가층이 주도하는 자기서사는 자신의 욕망과 공동체의 이상을 조화시켜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근대성의 상징적 형식으로서 성장서사와도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자기서사는 그간 사회에서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이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고 대항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미디어로 기능하고 있다. 가령, 캐시 박 홍은 자서전과 사회비평이 뒤섞인 모듈(module)형 에세이 『마이너 필링스』에서 자신의 틱(tic) 장애와 우울증은 자신이 미국 사회에서 차별받는 여성이자 인종적 소수자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평생 조건부 사랑과 나를 하찮은 보푸라기처럼 교체 가능한 존재로 여기는 사회에 시달린 덕분에 내 자신감은 피폐해졌다."[2]는 비명 섞인 고백은 텍스트를 진동시킨다. 이러한 고백은 더 이상 주류 사회에 인정을 갈구하지도, 자신을 정상화하기 위해 분투하지도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지금 자기서사는 사회적 주변인들이 목소리를 냄으로써 주류 질서의 모순과 억압성을 들추는 대항적 글쓰기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서사 현상은 페미니즘 리부트의 한 양상이다. 여성의 자기표현 욕구는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이 여성의 각성과 연대의 장이 된 디지털 페미니즘의

2 캐시 박 홍, 노시내 역, 『마이너 필링스: 이 감정들은 사소하지 않다』, 마티, 2021, 26쪽. 21세기에 들어 낸시 프레이저가 탈사회주의적(postsocialist) 조건이라고 명명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대안적 질서에 대한 비전의 부재와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사회 운동의 에너지와 상상력의 고갈은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바깥'이 없는 세계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부추기고, 다수자들의 삶 역시 위기로 몰아넣는다. 20세기 중반에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해 오늘에 이른 영미권이나, 서구에 비해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은 늦었지만 그 어떤 지역보다 혹독하게 이행을 겪어 후유증도 큰 한국과 일본은 소수적 감정이 표출되기 쉬운 공통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자기서사도 공통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여성과 소수자들의 자기서사는 영미권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권위 있는 문학상을 석권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매기 넬슨의 『아르고너트』(The Argonauts), 크리스 크라우스의『아이 러브 딕』(I Love Dick), 캐시 박 홍의 『마이너 필링스』 등은 시·소설 못지않게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다.

흐름 속에서 고통을 나눌 수 없게 만드는 '단속사회'를 허물고, 다른 한편으로 유명인이나 전문가 위주로 돌아가는 출판 제도를 무너뜨리며 오프라인으로 나왔다.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라는 선언과 함께 ADHD, 공황장애,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병러'(정신병+-er) 커밍아웃이 이루어지며 질병과 광기를 고백하는 자기서사가 급증했다. 혹자는 이러한 노출과 고백의 문화에서 자신의 질병이나 고통마저도 활용해[3] 자신을 타인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관종(關種)의 욕망, 즉 자아의 브랜드화라는 시장의 구속된 자아 연금술의 징후를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이후 대항적 정치 공간이 사라지면서 자기계발은 위기의 시대를 해쳐나갈 마법적 해결책으로 우리의 문화와 내면에 상당히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후 대중의 종교로 부상한 긍정심리학은 자존감을 모든 결핍과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기적의 마법이 되었고, 높은 자존감을 가진 이상적 자아 상은 되레 완벽하지 못한 자기의 결함을 적발하고 자아를 추궁하게 해 통상적인 우울이나 부적응마저도 병적인 것으로 진화하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지극히 평범해 지루하기조차 한 자신을 남들과 구별지어 특별한 존재로 브랜드화하는 전략마저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기 자신을 영향력이 있고 매력적인 주체로 보고 스토리텔링하는 신자유주의 셀피 문화는 성적 괴롭힘이나 피해에 몸을 웅크리지 않고 강력하고 전략적으로 그것을 이슈화하는 피해자 여성을 출현시킴으로써 상업적 '셀러브리티'와 다른 사회적 유명인을 탄생시키기도 하고 있다.

이렇듯 여러 의혹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기서사 현상은 여성/소수자가 더 이상 가부장제의 눈치를 보거나 정상성 규범에 주눅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여성이 자신의 내밀한 사생활이나 고통을 노출하는 것은, 페미니즘 지식이 대중화·보편화되고 페미니스트 '사회자본'이 형성됨으로써 '완벽한 여성'이라는 환상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의 언어를 공

3 본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병"은 정신병을 줄인 말로 비하적인 뉘앙스가 강한 단어였지만, 당사자들이 트위터에서 '정병'에 영어 접미사 '~er'를 붙여 스스로를 '정병러'로 칭하며 자기의 질병/광기를 고백하면서 더 이상 낙인의 언어가 아니라, 아픈 사람이 '자기'를 말하고 탐구할 수 있게 해주는 장르가 되었다(김은하, 「여성 정병러의 소수적 감정 쓰기」, 『현대문학의 연구』 제78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22, 520-521쪽).

유하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자기서사는 자기 자신의 삶을 무대화함으로써 비규범적인 여성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실험이 되었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페미니즘 이론에 기대어 자신의 내면과 정동을 설명하고 참된 자기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기서사 현상을 인간 보편을 자처하며 글쓰기의 제국을 구축해 온 대문자 '나'에 의해 삼켜지거나 순치되었던 소문자 '나'들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버지니아 울프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서사 현상은 "곧고 검은 막대"와 같은 "'I'라는 글자의 지배력과 거대한 너도밤나무 같은 그 글자의 그늘" 속에서 안개처럼 사라지기 쉬운 여성의 견해나 목소리들이 분출하는 현상이다.[4] 사회적 주변인이 정치적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면 자기로부터 소외되고 원한으로 자아가 파먹혀 창조성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점에서 자기서사는 자아의 보호술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자기서사는 개인의 자기존립이 위태로워진 사회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진지 혹은 참호를 만드는 작업이지, 낭만주의 사조에서 이야기하는 자기의 고유성과 독창성에 대한 나르시시즘적인 집착과 무관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젊고 아픈/미친 여자들의 자기서사 중 거식증에 관한 회고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학적 설명에 의하면 거식증은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으로, 스스로 먹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심한 경우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겨 죽음에 이르는 정신 질환이다. 거식증은 광장공포증, 히스테리와 함께 대표적인 여성의 광증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2000년대에 들어 몸 담론이 활성화되면서 수전 보르도, 샌드라 리 바트키 등 페미니즘 이론가들의 거식증 연구가 국내에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흥미로운 페미니즘 이론으로 다가왔던 거식증은 오늘날 지극히 현실적인 이슈가 되었다. 여성의 거식증 유병률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발병 연령대는 점

4 여기서 'I'는 간단히 말하자면 여성이나 타자의 목소리를 짓누르는 글쓰기 주체로서 남성적 저자를 의미한다. 버지니아 울프는 "'I'라는 글자의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의 형체가 안개처럼 사라"(151쪽)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소설가다운 상상력을 발휘해 "그때 앨런이 일어났고 앨런의 그림자가 금세 피비를 지워버렸습니다. 앨런은 자기의 견해가 있었고, 피비 는 그 견해의 홍수에 잠겨버렸기 때문입니다."(152쪽)라고 썼다(버지니아 울프, 이미애 역, 『자기만의 방』, 민음사, 2006, 151-152쪽).

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식증이 급증하는 현상은 오늘날 몸이 자기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문화적 약호가 되었다는 점과 관련이 높다. 비만한 몸은 단순히 건강하지 못함이 아니라 실격의 표식이며, 날씬한 몸은 하이엔드 패션처럼 계급의 지표다. 따라서 날씬한 몸의 이상으로부터 누구나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거식증 환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 그것도 젊은 여성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몸이 여성문제임을 뜻한다.[5]

캐롤라인 냅은 회고록 『욕구들-여성은 왜 원하는가』에서 자신의 거식증을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망 대 욕구가 우리를 압도하고 좌지우지하고 길을 잃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둘의 충돌"[6] 속에 위치시킨다. 냅은 젊은 여성들이 '제2의 물결'을 경유하며 기성세대 여성들과 달리 많은 선택의 기회를 얻었지만 여전히 '나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말하게 이끄는 권리 의식, 행위 주체성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여성의 거식증을 "여성의 신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수척하고 앙상한 몸의 이미지들에 대한 한 가지 반응"

---

5 최근 들어 폭식증, 거식증 등 식이장애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섭식장애 환자 10명 중 8명은 여성이다. 더불어 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폭식증 환자는 4,115명으로 2018년 대비 32.4% 증가했으며 거식증 환자는 3,084명으로 2018년 대비 44.4%, 기타 식이장애 환자는 5,515명으로 2018년 대비 68.5% 증가했다. 여성은 전체 폭식증 환자 17,778명 중 88.8%(15,795명), 전체 거식증 환자 13,368명 중 74.0%(9,894명), 전체 기타 식이장 애 환자 20,107명 중 79.9%(15,888명)를 차지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기사를 참고 할 것(김미진, 「최근 5년 간 10대 여성 거식증 97.5% 증가」, M이코노미 웹페이지, M이코노미 뉴스, 2023.12.11.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9262#).

여성의 자기 몸과의 불화 표현으로서 거식증은 세대를 넘어 범여성적으로 나타나지만, 젊은 여성들에게서 좀 더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국내 거식증 환자 중 10대 여성이 14.4%, 20대 여성이 11.4%나 증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는 사실은 거식증이 젊은 여성들의 질환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일부 프로아나가 거식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다수의 프로아나들이 해시태그 '#프로아나_트친소'를 이용해 동료 프로아나들을 만나고 거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류지현·조윤희·원용진, 「프로아나(proana): 몸 정치성의 교란」, 『미디어, 젠더 &문화』 제36권 4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1, 8쪽).

6 캐롤라인 냅, 정지은 역, 『욕구들-여성은 왜 원하는가』, 북하우스, 2021, 33쪽.

으로, “그러한 이상에 순종하는 동시에 그것에 조롱하며, 섹슈얼리티의 모든 부수적 신호들, 즉 젖가슴과 엉덩이와 궁둥이를 제거하고 대신 그 자리에 현란한 캐리커쳐, 살과 뼈로 된 잔인한 만화를 남겨”두는 “소리 없는 항거”[7]라고 해석한다. 여성이 체중 조절에 대한 가부장제의 규율을 완전히 거부하지 못하면서도 성인 여성의 몸을 거부하고 탈(脫)성화하기 위한 시도로써 거식증은 여성의 몸을 가지고 사는 일의 고통과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거식증을 가부장제에 대한 공모와 저항이라는 두 겹의 목소리로 읽는 수전 보르도의 입장과도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거식증을 외모관리의 일종으로 납작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여성해방의 몸짓으로 이상화하지도 않는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준다. 그러나 거식증은 저마다 다른 사연과 의도, 즉 행위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해석틀 역시 거친 도그마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라미의 『나는 죽는 것보다 살찌는 게 더 무서웠다』(마음의 숲, 2019)를 필두로 박지니의 『삼키기 연습』(글항아리, 2021), 김안젤라의 『살이 찌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창비, 2021), 김윤아의 『또, 먹어버렸습니다』(다른, 2021), 사예의 『나는 식이장애 생존자입니다』(띠움, 2022), 정유리의 『날것 그대로의 섭식장애』(부키, 2022), 이진솔의 『이제는 안 우울합니다만』(하모니북, 2022) 정예헌의 『꺾여도 그냥 하는 용기』(헤르츠나인, 2023), 박채영의 『이것도 제 삶입니다』(오월의 봄, 2023) 등 젊은 여성들의 거식증에 관한 회고록이 다수 발표되었다. 이들 젊고 아픈/미친 여자들의 자기서사는 의학적 해석과 치료를 넘어서 거식증에 대한 문화적 논쟁을 요청한다. 김훈의 「화장」, 박범신의 『은교』 등 한국문학에서 젊은 여성은 거세 위협에 시달리는 남성을 위안하는, 상처가 없고 죽음을 연상시키는 시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매끄러운 몸이었다. 그러나 이제 여성성에 대한 마지막 환상에 구멍을 내듯이 목구멍을 쑤셔 음식을 게워 내고 시체처럼 앙상하게 마른 젊은 여자들이 출현했다. 젊고 아픈/미친 여자들의 자기서사는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에게 준 역할이나 규범들과 불화하며 자기 안의 가부장제를 토해 내고자 하는 ‘마녀’들이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질병/광기는 단순히 정상 문화를 이탈한 증거가 아니라 여성으로 살아가는

7 위의 책, 56-57쪽.

것에 대한 고발이자 사회가 이야기하는 젠더 규범성과 여성의 갈등을 복잡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거식증이 여성의 허기와 고통에 대한 고발이자, 아버지의 법에 포획되지 않기 위한 딸의 출구 전략임을 보여주는 박채영의 『이것도 제 삶입니다: 섭식장애와 함께한 15년』과 박지니의 『삼키기 연습』을 통해 자기서사의 여성주의적 급진성을 살펴보겠다.

2 엄마의 고통에 대한 딸의 응답과 몸의 항거 : 박채영의 『이것도 제 삶입니다』

1960-80년대 서구에서 '제2의 물결'과 함께 유명해진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는 문구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것도 깊이 파헤쳐 보면 한 사회의 성격이나 구조와 닿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50-60년대에 착하면서도 분노로 갈팡질팡하던 여성들은 이러한 메시지에 고무되었고 1970년대에는 자전적 회고록 창작을 시도함으로써 해부학적 운명을 내세워 여성들에게 남성과 아이들에게 자신을 종속시켜야 한다고 압박하는 젠더/섹슈얼리티 규범에 맞서고, 주류적 삶의 방식과 부딪치며 인종적·성적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었다. 게일 루빈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주목해 개인의 경험과 이론을 통합하는 자신의 글쓰기 방식인 '일화 이론'을 지식이 세계와의 연결을 거부하고 추상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여성학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8] 박채영의 『이것도 제 삶입니다』는 정교하게 정식화된 이론조차 미끄러지게 만드는 질병의 복잡성을 보여줌으로써 질병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환기시키는 자기서사다. 박채영의 자기서사가 주목을 끄는 것은, 자기서사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삶에 통일성을 부여함으로써 자기를 보살피고 사회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자아의 테크놀로지, 즉 정상화의 방식이 아니라 "증상은 한 인간이 가진 고통의 표현"[9]이자 "그가 살아낸 사회, 그가 통과한 역사"(15쪽)를 보여줌으로써 질병의 사회·정치성과

8 제인 갤럽, 김미연 역, 『퀴어 시간성에 관하여』, 현실문화, 2023, 52-53쪽.

9 박채영, 『이것도 제 삶입니다』, 오월의 봄, 2023, 16쪽. 앞으로 텍스트를 인용할 때는 본문에 출처 표시 없이 페이지 수만 밝히겠다.

여성적 맥락을 인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자기서사가 자기에의 배려와 더불어 타자성과 공유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사회적 관계성의 최소 조건”[10]에 대한 상상과 논의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흔히 거식증은 가부장제 사회가 이상화하는 날씬한 몸에 대한 여성의 미친 열정으로 해석되기 쉽다. 여성은 남성보다 자기 몸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체중에 훨씬 더 집착한다. 음식의 칼로리를 일일이 헤아리고, 충분히 날씬함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분명히 여자들이다. 그래서 거식증은 여성이 외모지상주의의 피해자이면서도 그것에 함몰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증거로 간주되기 쉽다. 그러나 거식증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당사자가 고백하는 거식증의 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박채영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먹은 음식들을 토해온 15년 병력의 거식증 환자로, 거식 증상이 처음으로 발생한 시기에 자신이 열여섯 살의 탈학교 청소년으로 갑자기 소속이 사라진 데다 처음으로 사귄 남자 친구와도 헤어진 후 상실감에 시달리는 등 자아의 위기를 겪었음에 따라, “급변하는 주변과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나를 지키고 싶”어서 “내 의지로 움직이거나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상”(28쪽)인 몸을 선택했던 것 같다고 설명한다. 여성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자아의 상태나 표현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욕구를 통제함으로써 자아의 건재함과 자율성을 확인하고 싶은 열망이 강했다는 것이다.

여성에게 당연한 의무인 양 아름다움을 요구하고, 외모에 따라 다르게 사회적 보상을 주는 외모지상주의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매력자본’으로 대상화하고 외모관리라는 여성성의 규율을 수행하도록 이끄는 여성문제임이 분명하다. 수전 보르도의 분석처럼 거식증 환자의 몸은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의 이상을 과잉되게 수행함으로써 그것의 폭력성을 패러디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적 장소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11] 그러나 거식증 환자를 아름다움의 판옵티콘에 갇힌 죄수로 은유하는 것은 다소 진부한 접근으로, 거식증 환자가 가

10 정명중, 「신자유주의와 자기서사」, 『인간·환경·미래』 제19호,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7, 7쪽.

11 수전 보르도, 박오복 역,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 또하나의 문화, 2003, 175-206쪽.

죽과 뼈만 남아 타인에게 불쾌와 역겨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로테스크한 몸을 얻을 때 왜 만족하는지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한다. 거식증 환자는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저자는 "나의 몸을 통해 전해지는 불필요한 사회의 요구와 참견, 몸을 거쳐 전달되는 온갖 편견과 무례함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일 뿐 "사실 난 내 몸이 좋았다."(159쪽)고 항변한다. 저자의 항변은 질병 혹은 광기에 대한 단일하고 완고한 해석의 체계로 인해 거식증이 발생하는 저마다 다른 맥락이나 동기 등이 지워지고 아픈 사람의 욕구나 주체성이 무시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할 필요를 제기한다. 근대 정신의학이 몸의 다양성, 생애의 다양성, 고통의 다양성을 단일화함으로써 질병이 한 인간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누락시켜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12] 또한 정상성에 대한 날조된 신화는 정신질환을 이질성과 타자성을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정신을 잠식해 들어간 어떤 사건 혹은 경험을 다시금 삶 속으로 불러 들이지 못하게 했다는 점도 짚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정신질환이 치유되거나 애도되지 못한 어떤 고통을 재상연하는 외로운 작업이라는 점은 주목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박채영의 자기서사는 딸의 거식증을 모녀 갈등으로 설명해 온 정신분석이론의 가부장성을 비틀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인 텍스트다. 정신분석이론은 딸이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혹은 독립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지만, 어머니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때 어머니와 밀착된 상태를 견디지 못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거절했다는 딸의 죄책감이 폭식과 거식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해 왔다.[13] 이러한 해석은 질병을 사회로부터 탈(脫)맥락화해 개인화하고, 여자 아이가 정상적인 여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분리하고 아버지의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얼핏 저자의 거식증은 어머니와의 분리 욕망처럼 읽힌다. 저자의 어머니 박상옥은 딸이 독립을 시도하자, 이를 자연스러운 상실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딸에게 버려진 것 같다는 감정적 충격을 호소함으로써 딸에게 죄책감을 안겨주기때문이다. 모녀는 칭칭 동여매듯

12 전희경, 「'젊은' 여성들의 질병 이야기와 시간 다시-읽기」, 『한국여성학』 제31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15, 201-242쪽.

13 최명기, 『귀 기울임의 미학-타인에게 한 발 다가가기 위한 심리 수업』, 시공사, 2019, 100쪽.

이 서로를 끌어 안아야만 잠이 들 수 있을 만큼 애틋한 관계였지만, 사실상 결코 평안하지 못했다. 가난한 이혼녀인 어머니 박상옥은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저자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충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없었다. 어린 박채영은 아침 밥만은 열심히 챙겼주었던 어머니와의 식탁에 특별히 애착을 느낄 만큼 어머니가 고픈 아이였다. 따라서 "밥을 삼키며 엄마를 느꼈다"(76쪽)고 할 만큼 먹는다는 것은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또한 박채영은 둘째 이모, 외할머니, 엄마 지인들의 집을 떠돌 때 자신을 사로잡던 "불청객 어린이로 몸이 커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서럽게 기억하고 있기도 했다. 그러나 모자 가정의 취약성은 지워진 채 어머니가 딸이 광기를 일으키게 한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서는 안 된다. 저자는 어머니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고, 어머니가 부재한 시간 동안 자신을 길러준 타인들과 나눈 시간을 소중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모녀관계를 갈등으로만 설명할 수도 없다.

분명히 저자의 거식증은 어머니와의 분리 욕구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자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음식, 즉 사랑을 거절하며 느낀 감정은 홀로 설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서의 성취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적대감의 표현이 아니라 어머니를 사로잡아온 우울의 블랙홀에 빠져 익사하지 않기 위한 안간힘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겪은 성폭력과 그로 인한 우울의 정동이 저자에게는 너무 무거웠던 것이다. 주디스 허먼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과 근거리에서 자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피해자의 외상에 전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외상은 전염성이 있어서 사건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역시 피해자가 경험하는 공포, 분노, 무력감 등을 함께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엄마의 역사는 지금 나의 몸에도 흐르고 있다"(123쪽)는 고백은 저자는 어머니의 '고통'과 '더불어' 살아온 간접 피해자였음을 뜻한다. 그러나 저자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엄마를 떠난 것은 아니다. 집을 떠나며 저자가 남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질 못했어"(116쪽)라는 말은 엄마를 위로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비난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어머니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연민하며 그녀를 치유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1부 "이야기의 시작"에서 저자가 자신의 삶에서 거식증이 최초로

발생한 시간으로 되돌아가고, 2부 “나를 키운 여성들”에서 외할머니에서 어머니, 이모로 이어지는 가족사를 경유함으로써 3부 “이런 삶이라도”에서는 거식증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치유를 모색하는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저자의 거식증은 가족사, 여성사와 관련된 것으로, 무거운 침묵의 재갈을 풀어 진실을 말하고 이를 통해 온전한 자유를 얻기 위한 무의식의 주도면밀한 고투임을 암시한다. 만약 질병을 표현되지 못한 상처와 고통의 언어라고 했을 때 저자가 거식증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밝혀줄 열쇠를 가진 인물은 박상옥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현직 대안학교 교사인 박상옥은 유머를 즐기는 활달한 여성이지만 떠들썩한 모임이 끝나면 우울이라는 고통스럽지만 친숙하기 때문에 편안한 것으로 착각되는 옷을 다시 입는 사람이다. 박상옥은 13세의 소녀로 돌아가 “외로움, 슬픔, 불안”의 감정 속으로 침잠한다. 해 질 녘의 시골길에서 서울에 간 엄마를 기다리지만 엄마는 나타나지 않아 슬픔과 불안을 경험하는 것이다. 산업화기 가난한 농촌에서 박상옥과 그 자매들은 어머니가 돈을 벌러 서울로 떠난 뒤, 술에 취해 싸우는 삼촌과 상습적으로 어린 자매들의 옷을 들추던 남자 어른들의 성추행 등 어린 아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술되지 않았지만, 박상옥과 그 자매들은 어린 나이에 자아가 손상되는 추행과 폭력으로 트라우마를 입은 생존자였다. 박상옥은 여공들을 조직해 파업을 이끌 만큼 강단 있는 노동운동가였지만 폭력이 발생하는 시위 현장과 거친 성인 남성을 언제나 극도로 두려워했다. 박상옥의 남성에 대한 두려움과 일상을 사로잡고 있는 우울증은 피해의 역사가 조금도 잊히지 않고 여전히 몸에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박상옥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전무하고 일상에서는 폭력이 난무했던 시대의 가부장제와 일상적 파시즘의 피해자였지만,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으로 인해 여성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할 언어를 빼앗긴 ‘운동권’ 여성 지식인이었다. 1963년에 태어난 박상옥은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에는 파시즘적 국가와 스스로를 일체화한 모범적 어린이로,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대에는 반체제 사회운동을 위해 개인성을 희생한 여성 활동가로 분주했다. 애국과 반체제 운동은 거리가 먼 것이었지만 박상옥의 무의식은 공적 대의에 투신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성폭력 트라우마)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불안을 위

무하기에 분주했다. ‘운동권’ 문화는 박상옥이 불의한 권력에 대항하는 역사 주체가 되기 위해서 짓밟히는 성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외면하게 만들었다. 1980년대 운동권 문화의 군사화와 성별화에 관한 연구서인 권인숙의 『대한민국은 군대다』에는 김상인이라는 가명으로 박상옥의 구술 인터뷰가 실려 있다.[14] 언더그라운드의 활동가인 김상인(박상옥)은 여자 선배들처럼 집안일을 끌고 들어오지 않으면서도 남자 선후배의 속옷까지 빨아줄 정도로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조직에서 인정을 받는 운동권 여성 지식인이었다. 조직이 여성 활동가에게 기대하는 모성성을 적극적으로 보여 주었던 것이다.[15]

박상옥과 그의 어머니 이금주의 이야기는 역사의 진보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여성의 고통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이를 설명하고 치유할 언어의 부재라는 문제에 주목하도록 만든다. 이금주는 처녀시절에 재담가로 불릴 만큼 총명하고 활달했지만 당대 사회의 관례대로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남편의 학대와 바람기로 고통 받으며 본래의 자기를 잃은 무기력한 여성이 되었다. 이금주는 남편의 형제들이 딸들을 오랫동안 추행해 왔다는 것을 알고도 가해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난 몰랐지”라는 무기력만 말만을 읊조렸을 뿐이었다. 이러한 이금주의 반응에 분노한 박상옥은 어머니의 장례식에 지인을 초대하지조차 않았지만, 이금주는 딸들이 겪은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냉정한 어머니가 아니라 여성의 분노를 표출할 언어를 갖지 못한 무력한 여성이었다. 분노를 표현할 언어를 잃어버린 이금주는 죽기 전까지 자신의 식도가 파열될 만큼 칫솔로 목구멍을 찔러서 먹은 음식을 토하는 거식증을 앓았기 때문이다. 이금주는 딸을 보호하지 못했던 자신을 상처 내는 것으로 자기를 처벌하고 딸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했던 것이다. 다른 한

14 박상옥은 박채영의 회고록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한 「두 사람을 위한 식탁」(김보람 감독, 2023)의 시사회 현장에서 자신을 “억압적이고 통제적 사회 분위기가 한 여성 자의식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어떻게 억압하는지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소개하며 “…권인숙씨가 ‘군사주의가 여성성을 어떻게 말살하는가’에 대한 박사논문을 썼다. 그 논문 주제에 가장 적합한 여성으로 나를 인터뷰했다.”고 고백했다. 이러한 고백을 참조해 보면, 김상인이 박상옥임을 알 수 있다(최경헌, 「‘두 사람을 위한 식탁’ 김보람 감독…“섭식 장애는 외모지상주의보다 복잡한 원인 있어」, 문화뉴스 웹페이지, 문화뉴스, 2024.01.09.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985).

15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155-205쪽.

편으로 박상옥은 어머니보다 훨씬 더 높은 교육을 받은 고학력자이며 아이를 낳자마자 불화 중인 남편과 이혼할 만큼 씩씩했지만 자신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제와 싸우는 방법을 몰랐다. 다만 박상옥은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는 어머니를 증오하며 이금주처럼 되지 않기 위해 딸을 지키고자 분투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은 딸에게 여성의 몸에 대한 깊은 불안을 유발하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왔다. 도처에 폭력적인 남성들이 즐비하다는 점을 딸에게 상기시키고 몸을 방어하도록 한 결과 딸은 되레 자신의 몸을 쉽게 뚫리고 오염될 수 있는 무력한 존재로 느끼고 타인을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이 처한 불의에 맞서라고 가르치기보다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수치심을 투사함으로써 박상옥을 사로잡은 불안이 딸에게 전이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고 보자면, 박채영의 거식증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여성으로서 동일시 표현이자,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삶과 고통에 대한 새로운 세대로서의 딸(여성)이 보여주는 온 몸의 응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라 아메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몸을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고통의 사회성과 고통의 정치적 힘을 강조한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다발성 경화증으로 투병해 온 엄마의 고통을 목도해 온 자신의 경험을 "나는 내가 살아낼 수 없는 것과 함께 살았다"라고 표현한다. 이 문장은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의 고통을 당사자처럼 똑같이 느낄 수는 없지만 상대의 몸에서 고통을 읽어낼 수 있기에 상대방의 고통은 결코 '나'와 무관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우리에게 타인의 고통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16] 이렇게 볼 때, 저자는 엄마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 본 증인으로서, 음식을 토해 내는 것으로 육체를 자존과 쾌락의 원천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여성의 허기를 증상으로 드러내고 여성의 몸에 대한 갈등과 불화를 표현했던 것이다. 저자 개인의 측면에서 보자면, 거식증은 충분히 사랑을 주지 않는 엄마에 대한 분노 표현이라기보다, 엄마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외면하지 않으려는 엄마에 대한 애착의 표현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성 거식증 환자이지만 직업이 요리사인 저자는 엄마와 같

16 사라 아메드, 시우 역,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 봄, 2023, 75-80쪽.

은 중년 여성들에게 따뜻한 식탁을 차려주고 싶다는 말로 어머니의 정신적 허기를 채워주고 영혼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싶은 마음을 고백한다. 다른 한편으로 역사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박채영의 거식증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급진 문화운동의 주류로서 젊은 여성이 각기 다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몸 경험을 비동시적인 것들의 동시적 콜라주로 체현하고, 근대 정신의학이 누락시킨 몸의 다양성과 고통의 다양성을 반사해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채영의 자기서사는 여성의 거식증이 남성의 시선과 욕망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건 투쟁다. 저자는 거식증은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특정한 신체, 표정, 몸가짐, 말투를 강요받고, 그것으로 개인의 가능성까지 평가 받아온 여성들이 꺼내지 못한 에너지를 분출하기 위해 선택한 발악”이자 “나를 나대로 살게 해달라”(159쪽)는 외침이라고 말한다. 남성의 특권을 중심으로 조직된 세계에서 여자라는 몸은 우연한 폭력들에 내맡겨진 불안의 근원이며 성적 규범에 의해 자유가 억눌리는 노예의 집이다. 몸은 여성이 욕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가부장제의 집인 것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몸의 가부장제에 순응할 수 없어 풍만한 여자의 몸을 거절하는 식으로 몸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아무런 무기가 없는 사람에게 몸은 스스로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점에서 거식증은 가부장적 사회 질서에 복종하지 않고 봉합되지 않으려는 소녀/여성의 처절한 투쟁인 것이다. 여성의 질병으로서 거식증은 미쳤다는 것의 젠더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박채영의 자기서사는 거식증을 단순히 질병으로 낙인찍는 것을 거부하며 거식증이 여성의 광기, 즉 반란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거식증 환자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점에서 거식증을 저항으로 미화할 수만은 없다. 반란과 저항을 통해 여성의 주체성이 표출된다고 해도, 삶이 죽음이 유혹하는 가장자리로 떠밀려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저자는 거식증을 떠나 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세상과의 화해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낯선 사람들과 탱고를 추면서 타인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밀고 당기는 힘의 균형을 체득함으로써 몸의 자율성 혹은 주권을 찾으려고 한다. 이렇듯 진전된 변화는 저자가 환자의 굴곡지고 복잡하며 다채로운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의학의 평면적인

진단에 굴복해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채영의 자기서사는 질병은 한 사람의 삶과 그가 살아낸 사회 그리고 역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것을 이해할 때 당사자는 자기에 대한 진정한 앎을 획득하고, 자신이 가야 할 확실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독자를 설득한다.

3 실격을 통한 자아 창조와 거식증에 대한 편집증적 지식애 : 박지니의『삼키기 연습』

거식증은 죽음충동의 일종처럼 보이기 쉽다. 먹는 것이 거부되어 신체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먼저 체중이 줄고 소화기관 장애가 나타난다. 그리고 점차로 피부 건조, 모발 감소, 손발톱 깨짐의 현상이 동반되며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져서 솜털들이 온몸을 덮거나 무월경이 초래되고 뼈도 약해져 골다공증이 생기며, 빈혈, 탈수 등의 증상과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심부전, 근육무력증 등이 발생한다. 거식증은 정신질환 중에서도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다. 그러나 거식증 환자가 원하는 것은 결코 자신의 소멸이 아니라 자아의 창조다. 여성 거식증 환자들은 충동적이고 비주체적일 것이라고 추측되지만, 진실은 이들이 강한 이상을 가지며 이를 추구하기 위해 죽음마저 불사할 만큼 의지적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몸에 대한 새도-매저키즘의 일종인 거식증은 삶에 대한 주체적 열망이 생명, 즉 자기의 육체적 안전마저 위협할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지니의『삼키기 연습: 스무 해를 잠식한 거식증의 기록』은 거식증이 진정한 자아를 창조하려는 여성의 광기임을 보여주는 자기서사다.

현재 출판 기획자이자 번역가로 활동하는 박지니는 스무 해를 넘는 시간 동안 거식증을 앓아 왔다. 저자는 대학입시를 앞두고 처음으로 거식 증상을 경험했고 대학생이던 2001년에 자살을 시도한 후 정신병동에 입원해 심리상담과 약물치료 등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치료에 큰 진전이 없어 젊음의 긴 시간을 먹고 토하는 거식증 환자로 살아 왔다. 여전히 위태롭지만 부분적으로 일상을 회복해 살아가던 저자는 38세이던 2017년에 회사를 나와 프리랜서 번역자 및 기획자로 일하던 중 키 167cm에 41kg의 심각한 저체중과 심장의 팔딱거림 같은 위험한 증세로 정신병동에 재입원한다. 거식증은 결코 끝나지 않을 악몽

처럼 이십년을 저자를 따라 다녔던 것이다. 그러나 박지니의 자기서사는 거식증이라는 신체화(somatization) 된 증상이 저자에게 들러붙은 것이 아니라 저자가 거식증에 애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실은 내가 어떤 사람일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자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나 납득하기 위해 싸우는 여성의 이야기"[17]라고 쓰고 있다. 저자에게 거식증은 단순히 떼어버려야 할 악성 종양이 아니라 스스로를 예술가, 연구자, 페미니스트, 인권운동가 등 개성적이고 특별하고 정의로운 자아로 창조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임옥희의 설명에 의하면, 거식증은 "기존 질서와 전통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억압적인 질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여성들이 미치거나 아프거나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히스테리 증상"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20세기 초반에 대도시 빈과 베를린 등지에서 신경마비, 경직과 마비, 발작, 간질성 경련, 틱 장애, 만성 구토, 거식증, 시각장애, 시각적 환영 등 히스테리 증상을 가진 여성 환자들을 만나는데, 이들은 대체로 지적 수준이 높고 자기 서사를 가진 부르주아 여성들이었다. 프로이트는『히스테리 연구』에서 자신의 내담자들이 무대의 배우처럼 증상을 몸 언어로 표현하는데 탁월하며, 낫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증상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고 썼다. 히스테리 여성들이 질병을 언어 삼아 분석가의 침상에서 배우처럼 개인극장을 연출하며 작가도 예술가도 되는 근대적인 여성들임에 주목한 것이다. 히스테리 여성들은 병자 연기를 통해 사회가 완전히 자신을 추방할 수도 없지만 길들여 사회 체제 속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게 만들어 가부장제에 순종하거나 부역하지 않는 전략가들이었다. 바로 이 점이 훗날 정신분석학이 페미니스트를 히스테리와 동격으로 취급하게 되는 이유였다. 실제로 프로이트의 히스테리 연구에서 '안나 O'라는 가명으로 등장하는 베르타 파펜하임은 훗날 미혼모, 사생아,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사회운동가가 되었다.[18]

박지니의 자기서사는 '나는 아프다'는 무의식적 전략을 통해 저자가 경쟁에

17 박지니,『삼키기 연습』, 글항아리, 2021, 11-12쪽. 앞으로 텍스트를 인용할 때는 본문에 출처 표시 없이 페이지 수만 밝히겠다.

18 임옥희,『불온한 신여성』, 도서출판 여이연, 2020, 224-228쪽.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하고도 이상적인 자아를 창조하고 페미니스트로서 목소리를 내는 출구 전략임을 보여준다. “파펜하임이나 이다 바우어(프로이트가 저술에서 ‘도라’라는 가명으로 기술했던 히스테리 환자)같은 여자들과 동류의식을 비슷한 걸 느”(139쪽)낀다는 고백은, 저자가 거식증을 정신질환이 아니라 가부장제에 대한 지적이고 반항적인 여성의 투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암시한다. 즉 거식증은 자아 창조의 전략인 것이다. 거식증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병적인 것에 대한 소녀 취향이거나 정신병의 낭만화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다. “남성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 정치를 논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예술을 지배할 때, 자신의 언어를 갖지 못한 여성들이 드러낸 무의식 전략이 ‘나는 아프다’였다”[19]라고 할 때, 오늘날 여성에게 자기 표현의 언어가 과연 몸밖에 없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 히스테리가 창궐하던 20세기 초반에 비해 훨씬 더 진보한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보수적인 가족 환경 속에서 부모의 이상을 만족시켜 줄 수 없지만 순응도 원하지 않는 모범생 딸들에게 이렇다 할 선택지가 없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박지니의 거식증 이야기는, 저자의 의도나 강조점과는 무관하게 탁월한 자아를 실현하고 세속적인 성공마저 거머쥐어야 한다는 기대 속에서 키워진 신자유주의 청년의 고통을 보여주는 것만 같다. 지방 도시의 공부 잘하는 우등생 소녀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한국의 근대화 이후 청년의 주술이 된 입신출세의 이상에 가까이 갔다. 그러나 우등생 소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서울대생이라는 ‘스펙’을 장착했지만 드높은 야심을 키우기는커녕 열등감에 파먹힌다. “흠 잡을 데 없는 아이들”, “빛나고 잘생긴 자갈들”(11쪽) 같기만 한 서울대생들 사이에서 지방 출신이자 상류계급과는 거리가 먼 자신을 예쁘지도 머리가 좋지도 않은 루저로 경험하며 커다란 수치심에 휩싸이는 것이다. 더욱이 저자는 소비자아동학과라는 자신의 전공에 도무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넉넉하지 못한 집안의 장녀로서 등록금이 싼 국립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저자는 전공에 관심이 없어 국문과나 영문과의 강의를 도강하고 유령처럼 빈 강의실을 떠돈다. 결국 저자는 출세해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음을 예감하고 어느 날 “의

19 위의 책, 226쪽.

자 위 펑퍼짐하게 덮는 허벅지가 끔찍해 죽고 싶"(103쪽)은 자기혐오를 경험하며 무의식적으로 경쟁에서 실격되는 길을 선택한다. "이상한 힘으로 고속 회전하는 원의 둘레를 붙들고" "원심력이 점점 세져서 낙오될 순간만을 기다"(111쪽)렸다는 서술은 저자가 실격을 통해 비상의 자유를 얻고자 했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왜 자신의 몸에 대한 극한의 학대인 거식증이어야 했을까? 박지니의 자기서사에는 거식증의 개인사적, 젠더적 차원이 명료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강원도 춘천이라는 보수적인 지방 도시에서 자란 저자는 권위적인 아버지와 가족 질서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 초등학교 교감인 아버지는 "누구를 가르치는 위치가 아닌 곳에 선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로 받아들"(89쪽)이는 권위적인 존재였다. 저자는 아버지가 자신의 병에 관심을 드러내자 "나는 이제 아빠가 말로써, 끊어진 대화와 언성으로써 나와 편을 맺고 '옳은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을 물리칠 방법을 찾아야 한다."(93쪽)고 경각심을 갖는다. 그래서 저자는 먹고 토하기를 반복해 36킬로그램이라는 "기대한 것 이상"(95쪽)의 몸무게를 얻어 기쁨을 느끼는 순간조차도 하루 이틀만에 2킬로그램쯤 늘어나는 일은 쉽다는 불안을 떼어 놓지 못한다. 그러나 저자에게 미친 영향력의 크기에 비해 아버지의 비중이 너무 적다고 할 정도로, 저자는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상세하고도 치열하게 탐구하지 않는다. 이는 소설가가 허구적 인물의 뒤에서 현실의 자기를 감추면서도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데 반해 자기서사 작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가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암시한다. 자신의 고백으로 인해 주변의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갈등과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들이 함구되는 것이다.

이렇듯 개인사를 솔직하게 노출하고 가족사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자는 연구자처럼 거식증의 젠더적 맥락을 설명하고 강조하는 식으로 글쓰기의 전략을 짠다. 이로 인해 이 책은 거식증에 대한 준(準) 연구서이자 자기서사를 겸하는 실험적인 스타일을 선보인다. 거식증의 개인적, 가족사적 원인과 맥락이 비워진 틈이 거식증에 관한 여러 이론이나 거식증 환자의 사례들로 채워지면서 거식증은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여성 주체의 광기로 설명된다. 아버지의 법을 거부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명령에도 따를 수 없는 저자에게 거식증은 가부장제에 대한 항거이자 반란이다. 정신병동에 입원한 저자는 슈퍼바이즈드 테이블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차 없는 1인분 분량"의 식사로 살이 오르자 "부글부글 끓고 썩으며

밖으로는 허공을 뚫고 미친 듯 발화하는 나무가 되고 싶"(70쪽)다고 절규한다. 입원 병동은 신적 권위의 원장이 통치하는 "아빠의 자궁"으로, 자신은 아버지의 목도리가 완성되면 그것으로 성을 탈출하거나 목을 매달고자 하는 라푼젤로 비유된다. 육친의 아버지와 정신병동의 의사가 공히 '아버지'로 상징되는 것은, 거식증이 아버지의 법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정상화, 즉 여성성 획득을 거부하는 전략임을 뜻한다. 거식증은 가부장적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인 것이다.

> "거울 앞에 벌거벗고 선 내 몸은 야위었지만 어깨와 팔, 늑골, 골반의 도드라진 뼈들은 기둥과 들보, 서까래처럼 익숙하고 본질적이며 그래서 아름다운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기괴하고 극단적이었지만 그 공식 자체엔 아름다움이 있었다.
>
> 그러나 눈길을 끄는 것은 얼굴이었다. 내 얼굴을 본뜬 가면 같았다. 눈이 푹 패이고 피부가 쪼그라든 탓에, 이목구비가 자아내는 표정은 마치 깊이 새긴 인장처럼, 이가 없는 노파의 얼굴처럼, 뮤지컬 배우의 화장한 얼굴처럼 과장스럽고 어색해졌다. 추하다기보다는 매력이 없었다. 젊은 여자의 매력, 인간의 매력이 전혀 없었다. 그건 만들어진 얼굴이었다.
>
>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 나는 내가 무척 편안하고 흐뭇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고 놀랐다. 나는 만족스러웠던 것이다. 내게 아무런 매력이 없다는 것이. 길을 걸을 때 아무도 나를 의식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인파 속에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것이. 나는 모든 관계의 외부인이었다. 누구와도 전혀 무관했다."(80-81쪽.)

위의 인용문은 거식증 여성에게 아름다움은 단지 왜곡된 환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미와 추의 전도(顚倒)임을 보여준다. 해골처럼 마른 몸이 아름다운 것은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뚱뚱해지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체중이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성인 여성의 몸을 갖지 않고 탈성화하기 위해서다. 거식증은 "여성스러운 몸, 즉 굴곡이 생기고, 여성

의 몸매로 완전히 형태가 갖추어지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의 표현이자 "어린 아기 같이 성(性)이 없어지면서 여성의 성으로부터 퇴화되어 성적으로 중성"[20]이 되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이는 거식증이 성인 여성이 되는 것에 대한 소녀의 불안 표현임을 암시한다. 저자는 어린 시절에 공중화장실에서 성인 남성으로부터 불쾌한 체험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한다. 스치듯 흘리는 삽화이기 때문에 무시되기 쉽지만, 공중화장실 사건은 여성이 된다는 것이 자아의 상실이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거식증은 여성의 몸에 대한 거부다. 인간이 자신에 대한 가장 일차적인 상을 지각하는 것도 몸이고 세계와 관계 맺는 가장 원초적인 매개체도 몸이다. 라캉이 말한 바처럼 인간은 '나'라는 정체성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 이미지와 상징질서가 부여해 주는 몸에 대한 의미를 통해서 형성한다. 문제는 이 세계는 남성의 특권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여성은 남근이라는 주인 기표를 가지지 못한 열등한 존재로 자신을 정체화해야만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근을 가진 남자들과 달리 여자들의 몸은 남근이 부재하거나 결여된 열등한 몸임을 받아들여야 정상적인 여성이 되는 것이다. 여성 거식증 환자는 이와 같은 몸에 대한 남성중심적인 의미를 수락하지 않기 위해 여성의 몸을 거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성이 되어야 한다면 여성이 되지 않기 위해 성장을 중지하고 남성의 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저자가 입원병동에서 만난 거식증 여성의 근육이 소진된 팔다리와 철사 같은 상체를 보며, 몸이 마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졌어요!"(59쪽)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여기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젠더화된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만큼 가부장제 사회에서 수치심은 여성의 자기 존재에 대한 감각에 깊이 뿌리 내린 감정이다. 수치심을 경험하지 않고 아이가 여성으로 성장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몸은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을 길들이고 통제하는 내밀한 테크놀로지다.[21] 따라서 수치심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장을 중

20 캐롤 M. 코니한, 김정희 역, 『음식과 몸의 인류학』, 갈무리, 2005, 155쪽.

21 리즈 콘스터블은 수치심을 개인적, 간주간적, 사회적으로 작동하는 복잡한 상태를 수치심의 '상관적 문법(relational grammar)이라고 하면서 수치심은 여성의 신체, 여성 섹슈얼리티, 여성성과 관계를 맺으며, 여성 개인의 위치와 정체성을 구성하고, 가족이나 국가, 민

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여성의 몸을 수치심으로 받아들이면, 여성이 자신의 몸과 화해할 가능성은 차단되고 해방된 여성으로 남기 위해서는 몸을 제거해야 하므로 거식증 환자는 죽음의 협곡으로 떠밀려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식증의 패러독스에 대해서 이 책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대신에 저자는 자신의 지극히 내밀한 기억들을 발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질병의 비밀을 찾아내기보다 예술가들의 거식증 사례나 거식증에 대한 인류학, 페미니즘 이론을 통해 자신을 한낱 기괴한 광인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고자 한다. 위 인용문에서 저자가 거식증을 "만들어진 얼굴"이라고 하는 대목은 거식증이 타인을 속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가면임을 암시한다. 입원 병동의 소녀/여성들은 정신과 의사가 자신을 광인 취급한다고 분노한다. 이와 같은 소녀들의 분노는 정신질환자의 기만이 아니라 거식증의 연극성, 즉 전략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식증의 연극을 통해 거식증 소녀는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는가? "누구와도 전혀 무관"한 "모든 관계의 외부인"이 되는 것이라는 고백은 거식증이 가족적 사회적 질서로부터 탈주하고자 하는 욕망임을 뜻한다. 저자는 우울증이 깊어지면 한국어는 읽을 수가 없지만, 영어 텍스트는 소화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한다.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프랑스어로 글을 썼던 조현병 환자 루이스 울프슨이 자신의 직계 조상이라면서 소속 공동체로부터의 월경(越境)조차 시도한다. 대문자 아버지의 법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낯선 세계로 망명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다. 거식증은 가부장적 사회가 순치시키고 동화시켜 대문자 아버지의 법이 지배하는 상징질서 속에 갇히는 것에 대한 거부인 것이다.

이렇듯 저자는 거식증을 통해 모어(母語), 즉 아버지의 법을 따르지 않고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사랑 노동과 임신과 출산의 기능을 중지시켜 스스로를 글을 쓰고 연구하는 지적인 주체로 창조한다. 저자는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게 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만큼 읽고 쓰는 것에 가치를 둔다. 저자가 말하는 말(글)은 여성의 취약성을 상쇄시켜 줄 보철화, 사이보그화

족 정체성의 구성으로까지 연결된다고 지적한다(에리카 L.존슨·퍼트리샤 모런, 손희정·김하현 역, 『여성의 수치심-젠더화된 수치심의 문법들』, 글항아리, 2022, 10쪽).

된 외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기독교인이자 주부로서 이웃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외부의 충격에 쉽게 휘둘린다는 점에서 어머니가 취약한 존재라고 우려한다. “저희 엄마에게는 말이 한정되어 있어요.”(230쪽)라는 서술은 어머니의 취약성이 지식의 부재와 동일시되고 있음을 뜻한다. 여기서 말(글), 즉 지식은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유일하게 허락해 준 권력이라고 볼 수 있다. 말(글)은 부모와 저자에게 기대했던 바와 같은 인텔리겐차가 됨으로써 신분이동에 성공할 수 있는 구별짓기 자원이라기보다, 아버지의 서재에 침투해 이론의 언어를 움켜쥔 딸이 아버지, 즉 주인의 집을 허물고자 하는 반역의 도구이다. 저자가 보여주는 지식애는 소수자를 해방시키는 진실 탐구의 실마리, 즉 해방의 언어로서 지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처럼 거식증에 대한 편집증적 지식애를 바탕으로 젠더화된 질병인 거식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벗겨내고자 한다. 거식증을 앓다 자살한 예렘이 언니나 다비 등 “그 사람들을 복권해 주고 싶”(138쪽)다는 고백은 저자가 자신을 프로이트의 히스테리 환자였던 안나 O/베르타 파펜하임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듯이 이 책의 상당 부분은 거식증에 대한 저자의 해박한 지식에 대한 소개와, 정신과 의사, 심리 상담사 등 자신을 치료해 온 전문가 그룹과 오간 이메일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정신의학, 심리학 전문가들을 향해 저자는 거식증에 대한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과잉 전시하고, 이를 통해 거식증에 대한 전문가들의 몰이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으로 자신은 미친 여자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저자는 루이즈 글릭의 글을 인용해 거식증이 단순히 자기파괴적인 행위가 아니라 “되레 그럴싸한 자기self를 쌓아 올리려는 것”, 즉 “수단이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유일한 방법으로 자기를 만들”(325쪽)기 위한 창조 행위임을 강조한다. 거식증을 결코 제거되어서는 안 되는 자신의 진짜 말, 즉 진정한 자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지식의 참호 속에서 젊은 여자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자아의 혼돈과 상실의 위협에 맞서 자기를 지키고 또 독창적이고도 진정한 ‘나’를 창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거식증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거식증에 대한 오해를 일부 벗겨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럴수록 환자는 거식증에서 발을 뺄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거식증에 대한 낙인을 벗기는 과정에서 거식증이 질병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증명할 수 있는 이

상이 되어 버리는 역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4 자기서사의 문학적 시민권 문제 : 문학의 위기와 일인칭 리얼리즘의 서사성

그간 한국문학은 자기서사의 문학적 가치를 회의해 왔기 때문에 자기서사 정전을 떠올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서구 문학에서 회고록이 갖는 문학적 위상에 비해서 한국에서 자기서사는 2류의 글쓰기로 취급되어 왔다. 시나 소설처럼 허구적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심미성을 드러내는 것을 문학적 가치가 큰 것으로 여기는 장르 서열주의는 회고록을 진정한 문학의 반열에 올려 놓지 못하게 만들었다. 역사적 수난과 변절의 역사 속에서 자기 서사는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한 자기 포장이나, 진실 조작을 위한 글쓰기가 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문학의 공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높이 평가하는 한국문학의 전통 역시 자기서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한국문학은 '사소설(私小說)' 전통이 강한 일본 근대문학에 대한 비판과 대항 속에서 글쓰기의 정치성을 획득해 왔다. 가령, 일본 근대문학의 형식인 사소설은 "작가가 국가의 일에 관여치 않는 한 국가도 작가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국가와 작가 사이의 신사협정"[22]으로, 문학의 사회적이고도 공적인 역할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오래된 믿음과 관습의 체계들은 중대한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 나의 경험이나 사회적 위치를 부각시키는 자기서사는 대문자 문학이 보편을 자처하면서 흡수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여성과 소수자의 미적 양식으로서 문학적 시민권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서사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가 유사 보편의 언어 속에서 자신을 소실하지 않기 위한 정체성 정치의 일환으로 부상 중이다. 따

22 나쓰메 소세키나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은 나라에 무엇인가 중요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작가인 '나'는 사태에 개입하기를 거부하거나, 사태 자체를 외면한다. 일본 제국이 욱일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가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괜히 나랏일(國事)에 간섭해서 감옥에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장정일, 「이광수의 불행 한국 문학의 다행?」, 시사IN 웹페이지, 『시사IN』 제466호, 2023.12.09,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51).

라서 자기서사는 한국문학 장에서 1990년대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여성작가와 여성문학이 우세 종이 된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의 문학적 현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기서사는 문학의 위기를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다. 자기서사 작가이자 비평가인 비비언 고닉은 「회고록」에서 1960년대 '제2의 물결'을 경유하고, 1990년대에 들어 자기서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상을 문학의 위기와 관련해 진단한 바 있다. 그는 30년 전, 남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은 소설을 썼지만 요즘에는 회고록을 쓴다면서, 그 이유를 모더니즘 문학이 힘을 다하면서 독자가 서사의 즐거움을 더 이상 소설에서 찾기 어렵게 된 데서 찾는다. 일인칭 사실주의로서의 자기서사가 이야기를 통해 삶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날마다의 감정적 격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채워주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저마다 진지한 삶을 영위할 권리에 대한 자각의 표현과 인권운동과 심리치료 문화의 영향력 속에서 독자는 회고록의 작가로 변신한 것이다.[23] 비비언 고닉의 이와 같은 분석은 한국의 문학동네 상황을 설명하기에 큰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한국문학이 서사성을 잃음으로써 극소수 문학 전공자들의 아비투스로 전락하고, 유명 작가의 표절 사태와 2016년 문단의 미투 운동을 정점으로 해체 위기에 놓였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바 있다. 문학의 위기라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30대 여성작가들이 주도하는 여성서사의 약진과 보통의 여성 독자가 작가가 되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기서사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앞서 말한 바처럼 회고록 문학 정전을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만큼 자기서사의 문학적 권위는 의심스러운 것이다. 날마나 쏟아져 나오는 자기서사 텍스트들은 누구나 쉽게 저자가 될 수 있는 시대의 도래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측면이 있다. 자기서사의 인기는 서사의 쾌락은 만끽하고 싶지만 깊이 있는 내면 묘사를 읽어낼 만한 참을성이나 문해력이 없는 독자들을 위한 것이지, 문학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문학 제도는 회고록을 문학적 깊이를 가진 글쓰기로 보는데 인색하고, 비평

23 비비언 고닉, 앞의 책, 106-107쪽.

역시 자기서사에 무관심하다. 그러나 비비언 고닉은 회고록(자기서사)은 단순히 자기의 민낯을 독자에게 보여주는 노출증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야기의 원료 이상으로 작가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작가의 민낯으로 만들어지는 서술자가 회고록의 페르소나가 될 수밖에 없지만, 독자에게 가장 크게 보여야 할 것은 서술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체험이 지극히 사적인 넋두리와 푸념 혹은 자기변명이나 자기혐오의 고백이 아니라 타인과 사회가 들어야 할 의미가 있는 통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고록 작가에게는 자기에 대한 정직한 응시는 물론이고, '글을 짓는 상상력'과 '필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을 참고하면, 자기서사의 문학적 시민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 자기서사 비평과 연구가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24]

앞서 살펴본 젊고 미친/아픈 여자들의 자기서사는 여성이 가부장제의 규범이나 언어를 토해 내고자 하는 광기의 열정이 질병임을 보여준다. 과거에 사회적 성역할이나 규범에 복종할 수 없었던 미친 여자들에게 상상력, 즉 문학은 자신의 광기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었다. "규수 작가"나 "여류 작가"라는 여성의 글쓰기를 2류화하는 멸칭은 광기를 단속하지 않아도 되는 알리바이가 되기조차 했다. 따라서 단아한 여류작가 착한 여자가 승리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자세히 보면 광기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들은 더 이상 허구적 상상력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원료 삼아 슬픔과 분노를 표현한다. 더 이상 가부장제와 협상하며 광기를 무의식의 다락방에 가두거나 길들이려고 하지 않고 몸을 저항 공간으로 삼아 가부장제를 빠져나갈 출구를 찾는다. 치부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 놓으며 미쳤다는 것을 낙오가 아니라 아방가르드한 전위의 증거로 내세운다. 페미니즘의 이론과 페미니스트의 삶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 이론과 삶의 대통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24 최근 한국의 문학 독자에게서도 큰 인기를 한국계 미국인 그레이스 M. 조가 어머니가 겪은 한국전쟁과 국제적 이동의 역사를 젠더 경험을 축으로 그린 『전쟁 같은 맛』(글 항아리, 2023)은 자기서사가 시나 소설 같은 상상력 장르를 능가하는 문학적 성취를 보여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학자인 그레이스 M. 조는 이 작품을 쓰기 위해 상당한 시간 동안 글쓰기를 공부했고, 진실을 추적하는 논픽션 서술자를 성공적으로 창출했다.

자기서사는 여성의 역사에 대한 진지하고도 흥미진진한 고고학적 발굴이 되기도 하고, 정신병의 광기를 빌어서라도 아버지의 법을 뚫고 나가야 하는 절박한 욕망을 보여주기도 한다. 거식증의 광기는 자신이 와해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아버지를 거세시키고자 하는 전환 히스테리다. 그러나 때로 앞서 본 작품에서처럼 자기서사 작가는 자신의 정치적 삶과 타인의 존재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장면을 함구한다. 섹슈얼리티 같은 사생활은 감추어지고 가족의 이야기도 흐릿하게 처리되는 것이다. 이렇듯 말할 수 없음으로 인해 구멍이 난 부분을 채우는 것은 사회에 대한 논평이나 추상적인 이론들이다. 이로 인해 자기서사는 자기에 대한 정직하고도 깊은 응시가 아니라 여성학의 렌즈로 쓰는 범박한 자기 에세이로 전락하기도 한다. 자기서사 장르를 이론과 경험이 뒤섞인 실험적 글쓰기로 보고, 후기구조주의 이후 실효성이 사라진 대문자 이론을 대체할 소문자 이론의 탄생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자기서사의 사실주의와 문학성이 그만큼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이는 자기서사의 문학성과 정치성에 대한 비평적 논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박지니,『삼키기 연습』, 글항아리, 2021, 1-336쪽.

박채영,『이것도 제 삶입니다』, 오월의 봄, 2023, 1-244쪽.

단행본

권인숙,『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155-205쪽.

임옥희,『불온한 신여성』, 도서출판 여이연, 2020, 224-228쪽.

버지니아 울프, 이미애 역,『자기만의 방』, 민음사, 2006, 152쪽.

비비언 고닉, 이영아 역,『상황과 이야기』, 마농지, 2023, 107쪽.

사라 아메드, 시우 역,『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 봄, 2023, 75-80쪽.

수전 보르도, 박오복 역,『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 또하나의 문화, 2003, 175-206쪽.

에리카 L.존슨·퍼트리샤 모런, 손희정·김하현 역,『여성의 수치심-젠더화된 수치심의 문법들』, 글항아리, 2022, 10쪽.
제인 갤럽, 김미연 역,『퀴어 시간성에 관하여』, 현실문화, 2023, 52-53쪽.
캐롤라인 냅, 정지은 역,『욕구들-여성은 왜 원하는가』, 북하우스, 2021, 33쪽.
캐롤 M. 코니한, 김정희 역,『음식과 몸의 인류학』, 갈무리, 2005, 155쪽.
캐시 박 홍, 노시내 역,『마이너 필링스: 이 감정들은 사소하지 않다』, 마티, 2021, 26쪽.

논문

김은하,「여성 정병러의 소수적 감정 쓰기」,『현대문학의 연구』제78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22, 520-521쪽.
류지현·조윤희·원용진,「프로아나(proana): 몸 정치성의 교란」,『미디어, 젠더&문화』제36권 4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1, 8쪽.
전희경,「'젊은' 여성들의 질병 이야기와 시간 다시-읽기」.『한국여성학』제31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15, 201-242쪽.
정명중,「신자유주의와 자기서사」,『인간·환경·미래』제19호,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7, 7쪽.
김미진,「최근 5년 간 10대 여성 거식증 97.5% 증가」, M이코노미 웹페이지, M이코노미 뉴스, 2023.12.11.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9262#
장정일,「이광수의 불행 한국 문학의 다행?」, 시사IN 웹페이지,『시사IN』제466호, 2023.12.09.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51
최경헌,「'두 사람을 위한 식탁' 김보람 감독…"섭식장애는 외모지상주의보다 복잡한 원인 있어」, 문화뉴스 웹페이지, 문화뉴스, 2024.01.09.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985

Abstract

Sick/crazy young women and writing as a theory of one's own
–with a focus on the first-person narrative of anorexia nervosa

Kim, Eunha

In recent years, self-authors, in which a person looks back on his or her life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focusing on a specific point or event, have become a cultural dominant species. In particular, self-authors about disease and madness are rapidly increasing to the extent that young, sick/crazy women are emerging as authors. The self-authorship phenomenon can be said to be a willful expression that female minorities will no longer be wary of patriarchy or be intimidated by normality. Women's self-exposure is because feminist knowledge has become popularized and universal, and feminist 'social capital' has been formed, opening a hole in the illusion of 'perfect woman'. The self-authorship phenomenon is a cultural experiment that forms an unnormative female identity by staging one's own life.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article analyzes the stories of anorexia among self-authors of sick/mad young women. 『This is also my life: 15 years with an eating disorder』 and Park Ji-ni's 『Eating Practice』 require attention because disease/madness is not simply evidence of deviation from normality, but because it proves the feminist radical of self-authors by complexly revealing gender norms and female conflicts.

Key words: self narrative, anorexia, feminism reboot, self-theory, female madness, writing, etc

논문제출 / 2024.02.07.
논문접수 / 2024.03.16.
게재확정 / 2024.04.04.